

이슈브리프 660호
(2025. 2.17)

미일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시사점

제660호

김숙현 안보전략연구실



국문초록

2025년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이스라엘에 다음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다. 2024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일본 내 외교 역량 평가가 좋지 않았고 30%대라는 낮은 지지율을 보여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외교를 앞두고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냈다. 그 결과, 지지율도 일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논의되었는데, 첫째, 미일 안보협력 강화, 둘째, 미일 경제협력 확대,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연대였다. 두 정상은 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미일 관계를 '황금의 시대'로 만들겠다고 결의했고, 이시바 총리도 미일 공동성명이 향후 미일 관계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 대폭 확대, 도요타 자동차 등 공장 건설, 미국산 LNG 수입 확대, US 스틸 대규모 투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방위비 2배 증액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지역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을 재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일 연대 및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 지지,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안보 동맹 강화의 의지도 밝혔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통해 향후 대미 외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 미일 정상회담, 방위비 증액, 대미 투자 확대, 미일안보조약,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2025년 2월 7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첫 미일 정상회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일 안보와 경제협력,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연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세 부과였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터라 일본 정부로서는 긴장감을 느끼고 정상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 증액이나 구체적인 관세 부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2024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외교적 측면에서 약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까지 3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지속해 왔던 터라, 이시바 총리로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중요한 외교 시험대이기도 했다.

본 고에서는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공동성명을 살펴보고 미일 정상회담 주요 쟁점을 점검한다. 또한 우리의 리더십 부재 상황 속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이 주는 시사점과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대면 이시바-트럼프 정상회담, 친화력 구축에 주력

이번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이시바 총리가 선택한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화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먼저 일본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배려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했다. 먼저 이시바 총리는 평소 구사하던 긴 화법을 짧게 수정했다. 그리고 정치적 숙적인 아소 타로 전 부총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아소 전 부총리는

바이든 정부 시기, 트럼프와 회동하는 등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1기에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전 총리를 찾아가 회담 의제를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 대책 연구 모임’을 만드는 등 외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금장 골프채를 선사하자 크게 만족했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옆두에 두고 특별히 제작한 금색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로 준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일까?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환상적인 총리가 될 것이라 말하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뉴욕 타임스는 이시바 총리의 외교술에 주목하면서 ‘아부의 기술(the Art of Flattery)’을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도 귀국 후 9일 NHK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상대의 말을 차분히 듣는 느낌이었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7일부터 3일간 조사된 NHK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5% 정도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좋았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화력을 구축하면서 성공적인 대미 외교를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일 안보협력, 둘째, 미일 경제협력,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연대이다.

먼저 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미일안보조약 강조 △미일안보조약 5조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적용 재확인 △미일 방위 및 안전보장 협력의 향상을 통한 미일 동맹의 역지력, 대응력 향상 △미일 우주, AI, 사이버 등 양자 간 안보협력 확대 △2027년까지

일본의 방위책임 및 확대를 위한 방위비 증액 등을 확인했다.

미일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한 정책 조율 논의 결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을 통한 미일 경제협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일 연대 차원에서의 합의 내용은 기시다-바이든 시기의 추진 방향과 거의 유사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정상은 △미일호인(쿼드), 한미일, 미일호, 미일필 등 다층적 협력 촉진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한 반대 재확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강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 확인 △납치 문제 즉각 해결 실현에 지지 등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미일 공동성명을 향후 미일 협력의 ‘나침반’이라 언급하며, 새로운 미일 관계의 ‘황금의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미일 관계는 안보협력 강화, 양국 간 경제 불균형 해소 협력,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도모라는 차원에서 밀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증액 조치 및 대폭적인 대미 투자 강조

이시바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모두 발언에서 향후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 언급했다. 이미 일본은 5년 연속 대미 투자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액을 더욱 늘려 미국 경제에 일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대미 무역 적자를 대미 투자로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 중,

이스즈 자동차는 이미 미국에 추가로 공장을 짓기로 했고, 도요타 자동차도 공장 건설 계획 등을 제시하는 등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되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LNG 수출 증가로 양국 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협력 방안이기도 하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전 요소 중 하나는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였다. 이미 일본은 기시다 정부 시기였던 2022년에 2027년까지 방위비를 기존 1%에서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를 100%로 인상한 점을 강조해서 언급했는데, 혹시 모를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미일 경제 현안 중 하나인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는, 매수가 아닌 대규모 투자로 해결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수가 아닌 대규모 투자로 선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었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이시바 총리는 첫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얻고, 미일안보조약을 강조하고 센카쿠 (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적용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 우려했던 이른바, 북핵 관련 스몰 딜(small deal)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명확히 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대만의 국제기구 등에서의 활동에 지지를 표명한 점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협력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일본 및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를 담보 받고

대신 막대한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을 약속한 셈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유사하게 방위비 인상 요구와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제투자 및 천연가스 수입 등을 제안하여 경제적 압박을 회피한 일본의 대미 외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리더십 공백기에 외교 역량 발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언급된 점은 고무적이고 한일 관계가 원만히 작동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분간 정상외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미일 협력과 한반도 관련 사항과 북미 간 접촉 등에 대해 소통하고 면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